

K-스마트팜, 중동시장 공략 시동

UAE·사우디 등서 수출상담 활발

농식품부,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韓 기업 12개사 369건 수출상담 진행
 바이어 위한 수직농장 솔루션 등 소개

정부가 중동 주요국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해, 수직농장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서아시아 수출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열악한 기후환경을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UAE에서는 중동 최대 규모의 농업 박람회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농업 전시회(AgraME)' 행사장에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는 비즈니스 포럼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수출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 12개사와 현지 바이어 50여개사 간 369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농심, 도화엔지니어링, 미드바르, 이수화학, 천리팜, 케이에스씨, 팜인테크, 포미트, 한국수안, 한보일렉트, 효신,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 12곳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농심·미드바르 등 기존 중동 수출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도 참여했다. 일찍이 오만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을 수출하고 현재까지 중동지역에만 3건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농심은 기존 바이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농업전시회'에 조성된 한국관의 모습. /농식품부

이어들을 발굴했다. 또 미르바르는 지난해 개최된 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UAE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드바르는 추가 성과를 위해 소비자 전시회(CES)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에어팜'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공기 중 수분을 활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에어팜 기술에 중동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다.

CJ제일제당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동 스마트팜 진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도 합류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가 개발한 수직농장 솔루션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또 건설업체로서, 신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추진 중인 도화엔지니어링은 농식품부 로드쇼에 처음 참가해 자사의 강점인 수처리 기술 및 중동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했다.

한편 현지 정부기관들도 로드쇼에 함께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ESTI

DAMAH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우디 내 주요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발표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국내기업과 직접 수출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 관계자는 "한국 스마트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이번 로드쇼에서 뛰어난 한국기업을 발굴하여 쿠웨이트와도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은 아직 시작단계로,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내 시범온실 조성,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운영 등 중동과 활발히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국 20개 전시회 연계... 수출 붐업 행사

산업부·KOTRA, 2주간 전시장 운영

미국·유럽·중국 등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와 국내 첨단산업·소부장·바이오의료 등 수출 유망기업 3000개사가 2주간 전국 전시장에서 만나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K-수출 마케팅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31일까지 2주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

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행사 주제, 범위,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KOTRA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코엑스, 벅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 전국 주요 전시장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치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든 방한 바이어들에게는 숙박·식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과 관광코스 참관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로 새 가공식품 개발

농진청, 음료·소스용 쌀가루 개발

농촌진흥청은 15일 쌀가루를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고 고루 섞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는 일반 쌀가루를 물과 섞어 가열해 익힌 뒤 초음파를 처리하고 다시 건조해 분말로 만들면 완성된다. 초음파 처리로 쌀가루 입자크기가 작아진 데다, 분자 구조가 바뀌어 점도가 낮아지고 물과의 결합력은 높아져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 쌀가루는 기존 쌀가루보다 점도는 3% 수준으로 낮고, 가열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에 가라앉지 않아 음료, 양념, 미용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쌀가루 음료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통기한 안정제를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음료가 증

을 이루지 않고 고루 잘 섞여 품질이나 유통성 등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Ultrasonics Sonochemistry* (IF=8.4)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연구진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연속식 초음파 공정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처리 시간은 줄고 생산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쌀가루는 2018년 3만7132톤(t)에서 2022년 5만4446t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떡(27%)이나 술(25%)에 활용되고 있다. 쌀가루는 물에 쉽게 가라앉고, 가열했을 때 점도가 높아지면서 떡처럼 뭉쳐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성이 떨어져 음료나 양념(소스) 등 액상 제품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물순환 관리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박차

환경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추진
 물재해 맞춤형 관리·방재 대책 수립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기준 세분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 호수,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

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전문대에 바이오 인재 양성모델 전국 확산

폴리텍대학 4개 전문대학과 협약

한국폴리텍대학이 산업 수요에맞춘 바이오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

폴리텍대학은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동양미래대, 유한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등 4개 전문대학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롯데반)을 지역 대학에 확산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과 기업 경쟁

력 강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폴리텍대학과 4개 전문대학은 ▲롯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요구에 따른 수준별 기술 인재 양성 ▲대학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활성화 ▲기업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원 위촉·활용 등을 맡는다.

폴리텍대학은 롯데반 커리큘럼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검증(validation) 실습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시설을 전문대학에 개방한다.

양 기관은 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